

삼국시대의 견문화의 연구

— 고구려와 백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f Silk-Culture in the period of Three-Nation

— On point of the relation of Goguryo & Bakje dynasty —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박일록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

Prof.: Park, Il Rock

〈목 차〉

- | | |
|-----------------|-------------|
| I. 서론 | IV. 백제의 견문화 |
| II. 삼국시대의 견의 배경 | V. 결론 |
| III. 고구려의 견문화 | 참고문헌 |

〈Abstract〉

Cloth culture is one of the basic unit of constructing man's culture in a life of human being. One of the fundamental elements to construct cloth culture is the silk-fabric from the ancient time-Sam Han period B.C. 2~4 Korea.

This study is to survey the growing aspects of the silk-fabric in the culture of Goguryo & Bakje dynasty. It is an attempt to manifest that how silk-fabric influence through a trade or as means of currency between the two nations at that time.

To certify I use material such as *San guó zhì*, *Hòu hàn shū* from China Samkuksaki, *Dong-kuk-tong-gam* from Korea and *NiHon Shoki* from Japen, and I concerned the cultural relations of politics, economics and socity of the two dynastics, so as to prove a relative relation between the two. It is reached to the conclusion that silk fabric had been a constituent role at cloth culture at that time of Goguryo & Bakje.

It is pointed out that silk-fabric had been an important role to construct the culture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 through a trade and as a precious currency.

I. 서론

우리나라 잠업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까지 소급하여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잠업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한 구체적인 발전시기는 삼국시대부터였다. 이러한 잠업의 발달은 국민의 의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견직물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진데서 그 기술 또한 더욱 향상되어 갔다.

삼국문화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피복문화의 형태는 국가별, 시대별로의 문화 형성의 특징에 따라 그 궤를 같이 하여 왔으며, 견의 유입은 정치적 권위 상징의 귀한 피복재료가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계급을 외현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른바 유행의 사회문화를 형성짓게 하는 한편, 견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정책은 고대국가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하여 왔다.

삼국문화에서 견을 이해하는데는 삼국의 복장문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삼국의 복장문화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삼국의 땅에 삶을 영위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얻어진 체험의 발로이다. 즉 견의 삼국의 문화적 이해를 올바르게 하려면 삼국 복장문화에 기인하여 그 정신에서 우리나라 복식을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여야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복재료중에서도 높은 가치기준을 가진 견이 고구려와 백제의 복장문화를 형성해옴에 있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과 어떻게 관련되었는가를 규명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삼국시대의 견의 배경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기 고대국가 체제를 정비하여 국가형태를 띠게 된 것은 4세기초에서 7세기중엽까지이다. 이러한 삼국시대란 부족국가적인 형태가 지양되고 고대 민족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며 민족의식이 강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나라가 정립된 시대이다.

이러한 삼국의 문화적인 대외관계는 중국과의 관계가 전개된데에 그 특색을 지니고 있다. 삼국은 각기 통일을 위한 전략을 떠나감에 있어서 중국의 남

북조대립을 적절히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방의 유목민이나 남방의 일본과도 외교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자국의 발전에 필요한 중국의 문화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입하여 문화발전에 슬기롭게 조화시켜 나갔다. 또 한편으로 일본에는 특히 백제가 문물을 전파시켜 고대 일본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주었다.

삼국시대의 전문화도 이러한 삼국의 역학관계에 따라 성립되고 발전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문화적 속성이 체제를 갖추에 따라 사회의 유행속에 반영되었고, 이것은 정치제도 속에 투영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느때부터 비단의 생산이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인류가 비단을 생산한 것은 약 5,000년전으로 잡고 있지만 민간에서의 비단 생산은 인류문명의 시작과 더불어 소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비단생산은 유사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추측은 가능하다. 그것은 비단 생산과 관련된 양잠이 행해질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즉 기후가 대륙성이므로 우량이 비교적 적고 춘추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양잠에서 꺼리는 습기의 방지는 물론 병독 만연의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양잠에 필요한 뽕나무가 전국 각지에서 자생하고 있고, 잠업도 각지의 뽕나무에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단군신화에 근거를 두고 B.C. 2333년부터 역사의 시작을 잡고 있다. 건국신화의 기록에서부터 비단생산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

B.C.2240년 신축원년에 관한 내용을 보면, 檀帝께서는 …… 하늘에 제를 올려 예를 나하였다. 여러 왕들이 잔갈못을 살피시고 상벌을 신중히 하였으며, 도랑을 파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며, 농사 짓고 뽕나무를 심는 것을 권장하였다.²⁾ 그리고 B.C. 2241년 경자년에는 도랑을 파고 밭길을 내고 누에를 치도복 권장하여³⁾ …… 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이 양잠을 하기에 매우 적절

한 상태였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양잠이 시작되었으리라는 추측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

더우기 우리나라에서 직조기술이 일찍부터 발달했음을 입증해주는 신석기 유적에서 석재 방추차가 발굴되었다.⁶⁾

부족국가로 접어들면서 중국사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직물과 직조생활에 대한 기록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면, 일찍이 濊에서도 누에를 칠줄 알았고⁵⁾ 마한에서도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칠줄 알아 면포(綿布)를 짰다.⁶⁾ 또한 진한과 변한에서도 뽕나무와 누에를 쳐 겐포(縑布)를 생산하였다.⁷⁾ 그리고 부여 사람들은 외국에 나갈 때에는 언제나 증(繒)·수(繡)·금(錦) 등의 비단으로 만든 의복을 입었다.⁸⁾

따라서 濊, 馬韓, 辰韓, 弁韓은 그 지리적 조건이 평탄하고 기후가 온난한 농업지대였기 때문에 농업생산력이 높았고, 지정학적 위치에서 漢郡縣을 통하여 漢의 빈번한 교류속에 새로운 건축물 직조기술 및 양잠기술이 도입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들 수공업 발달을 자극하고 이러한 수공업 발달을 통하여 마포생산은 물론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길러 실(생사)을 생산하고 방추차를 이용하여 견직물 생산이 발달하였다.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선사시대의 직물을 생산하였던 원시적 양상을 탈피하였고, 그로부터 인위적인 섬유생산으로 전환하여 생산이 활발하여지고 직기구를 이용한 새 직조방법으로 훌륭한 각종 직물을 생산하는 등 크게 발전하여 갔다.

물론 삼국시대에는 한과의 직조기술도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 석암리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제 21호 고분에서는 수(繡)·사(紗)·금(錦)등 여러가지 비단이 출토되었고, 제 214호 고분에서는 수견(繡絹)이 출토되었으며, 제 205호 고분에서도 능문라(菱文羅)가 출토되었다.¹⁰⁾

Ⅲ. 고구려의 건문화

1. 고구려의 시대개관

고구려는 삼국중에서 가장 먼저 고대 국가를 이루 하였으며, 한나라와 투쟁과정에서 부족 연맹체를 이루며 발전하였다. 삼국 모두가 공통된 특징으로 고구려의 기본생업도 주로 농업이었던 관계로 국가에서는 생산적 증가를 위한 권농정책과 여러가지 보호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업정책과 맞물려 어업, 상업, 수공업이 발달하였고, 특히 수공업 가운데서도 직조, 직물, 염색이 정치, 경제,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에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시대의 건의 양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문헌을 비롯하여 본장에서는 현존하고 있는 고분벽화, 고분출토의 인물상 위에 나타난 의복형태, 염직, 문양등의 문헌을 통해서 고구려시대의 문화적 속성과 건을 고찰한다.

2. 건과 정치

건과 정치문화는 건의 생산을 위한 근잠상정책(勤蠶桑政策)과 하사품, 증답품, 정치제도에서 외현적 신분구별을 하기 위해 쓰였던 비단, 그리고 의복제도와 관련하여 정책을 시행한 것에 관한 것이다. 고구려는 부족연맹체 사회형태때부터 이미 비단생산과 관련된 蠶桑기록이 보이고 있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B.C.37~20)은 農桑에 힘썼으며 25대 평원왕(559~589)때도 왕명으로 농상을 권장하였다.¹¹⁾ 그러나 양잠방식이나 생산한 고치의 처리기술 등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아 정치제도적인 측면에서 뒷받침되는 양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지 장려하는 정도에 불과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정치 통치자인 왕의 관심정도에 따라 힘쓴 흔적은 보이나 국가의 시책으로 적극 시행한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워 민간중심으로 널리 행해졌으리라고 생각된다. 양잠과 植桑의 정책에 관련된 사실은 사료의 부족으로 그 구체적인 것을 알길이 없으나 정치적인 면과 연관된 비단의 각종 역할은 고구려시대에도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 우선 정치의 최고 통치자인 고구려 왕의 복장에 대해서 기술한 것을 보면,

高句麗王服 五采以白羅製冠 革帶金釧¹²⁾

“고구려 임금의 五采를 입고 白羅로 관을 쓰며 혁대에 금구(金釧)를 장식하였다.”

따라서 비단의 품질적 고귀성은 최고정치 지도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다. 여기서 오채란 오색비단을 의미하며 백라도 비단의 일종이다. 이러한 정치계급의 신분에 따라 비단의 종류나 문양, 색깔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같은 기록이 또 있다.

唐書高句麗傳曰 王服五綵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釧 大臣青羅冠 次能姜釧羅 珥兩烏羽金銀雜釧衫 袖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載弁 女子首巾囑¹³⁾

“왕은 오채복을 입고 흰 비단으로 관을 만들었으며 혁대는 금테두리를 하였고, 대신은 靑羅冠 또는 羅冠을 쓰는데 양쪽에 새것을 꿸고 금으로 장식을 하였고, 지고리는 소매가 좁고 바지는 통이 넓으며 흰 가죽피와 누린 가죽신을 신었다.”

즉 정치적 지도자계급의 신분에 따라 사용되었던 비단의 색깔이나 문양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계급의 신분을 나타냈던데 사용되었던 비단 재료가 나타나고 있는데 冠帽의 경우 옅고도 탄력있는 羅類는 紫羅蘇骨은 물론 靑羅冠, 緋羅冠, 絳羅冠 등까지도 연상시켜 준다고 하였다.¹⁴⁾

이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권을 고구려시대에 그것이 외적인 권위와 지도계급을 상징하는 문화적 속성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귀한 물건일수록 한 집단의 지배계급의 권력적인 성격과 그 희소성이 비례한다는 일반적인 사실로 미루어봐서도 비단은 그만큼 귀한 물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단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권력과 지도력을 상징하는 외적표현의 수단이었었던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치적 의미로 상징하고 있는 증납품, 하사

품, 비단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잠업정책 등에 관한 기록은 고구려에서 찾아 볼 수 없지만 지배층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비단이였기에 이에 대한 헌납 및 하사 등에 관한 사실을 추론해 보기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지배층인 정치 지도계급내에서 주로 비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그 수요를 위해서라도 이에 관한 생산 유통 등이 중점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며 여기에 따라 견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발달이 충분히 성행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3. 견과 경제

고구려 시대에도 신라나 백제와 마찬가지로 농업 중심 국가였음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모두 다 주지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농업면에서 세법(각자에 과하는 布穀稅), 助法(각 戶에 과하는 穀), 賑貸法(故國川王 179~196)같은 행정이 시행될 만큼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고,¹⁵⁾ 그리고 부세(賦稅)로는 견(明紬: 삼), 포(布) 및 속(粟)을 받을 만큼 행정체제가 갖추어져 있었다.¹⁶⁾ 또한 대륙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대륙의 여러 문화를 알고부터 받아들여 특히 製鐵, 鐵器製造의 발달은¹⁷⁾ 수공업의 발달 및 방직기술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본다. 그것은 고구려의 비단인 운포금(雲布錦), 오색금(五色錦), 紫地緋紋錦¹⁸⁾¹⁹⁾ 등의 직조기술이 훌륭하여 외국사서 韓苑蕃夷部 高麗條에까지 그 이름이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들이 수공업 및 방직기술의 발달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고, 신령리(新鈴里) 감신총(龕神塚) 전실 서벽벽화의 평상에 정좌한 인물상 뒤에 드리운 장막은 당초문(唐草文)과 왕자문(王字文)을 시문한 금(錦)으로 보여지는 비단일 것이다.²⁰⁾ 결국 이렇게 훌륭한 비단을 직조했다는 사실을 그 생산원료인 누에고치를 양산하였을 것임바, 이 원료인 누에고치를 외국에서 사들였을리는 만무하다. 그것은 바로 고구려 사회가 농업국가 형태였고 이러한 농업국가형태는 곧 잠업이 성행한 것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로 미루어 고구려시대에 잠업은 무척이나 성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고구려는 국가의 판도가 커지고 부강하여짐에 따라 주변국과의 통상이 발달하였다. 고구려의 대 중국 공무역이 절정에 달한 것은 장수왕(長壽王 413~491)시기 이후이다. 특히 장수왕 60년(472) 위(魏)에 조공한 이후 공무역(公貿易)이 크게 증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삼국사기에 보면,

春二月 遣使入魏朝貢 秋七月 遣使入魏朝貢²¹⁾
 “2월과 7월에 사신을 위로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당시의 대 중국무역은 奉表稱臣하여 토산물을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²⁾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고구려의 토산물인 비단이 공무역으로써 중국에 보내졌을 것이고, 이 비단을 본 중국 사람들은 중국 역사서에 고구려 비단의 훌륭함에 그 직물들을 기록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짐은 확정적 타당성을 가지는 논거가 된다. 특히 고구려에서는 중국지역과는 달리 白錦을 제적하였음이 나타나 있는데 이 白錦은 중국과 일본에도 전파되었다.²³⁾

그리고 일본과도 공무역을 하여 일본의 토산물을 수입하기도 하고 문화도 전파하였다.²⁴⁾ 즉 일본 天平시대 동대사(東大寺) 원물장(獻物帳)에 보이는 고려금(錦)이 고구려산이라고 하는²⁵⁾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료적 근거가 된다.

4. 견과 사회

고구려 사회에서 비단이 갖는 귀중품적인 가치는 귀족계급과 서민계급이 신분을 구별해 주는 사회계층의 외견적 표상이 되었다. 귀족계급과 서민계급의 외적구분은 그것이 복장문화의 사회상으로 표출되었고, 복장에 따른 사회문화 형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지배층은 비단으로 지은 옷에 금과 은으로 장식한 호화스런 복장²⁶⁾을 함으로써 지배집단의 외적표현을 비단과 금·은 등의 귀중품으로 나타냄으로써 사회지배계층의 순에 따라 비단을 색으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 서민계층은 비단옷 착용을 금지

함으로써 복장의 형태를 분명히 구분했는데 다음의 내용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즉

東明王十年 禁庶人着文彩紗羅衣²⁷⁾

“동명왕 10년에 서민(庶人)에게 文彩있는 옷과 비단옷의 착용을 금하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복식에 따라 사회계층의 계급적 사회질서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고구려의 서민계급이 비단옷을 전혀 입지 않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위서(魏書)에 보면,

常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其公會衣服皆錦繡 金銀以爲飾²⁸⁾

“상상 10월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큰 모임이 있다. 그 공회의 의복은 모두 금수(錦繡)로 만들고 금은으로 장식한다.”

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고구려 사회에서는 서민계급이라 할지라도 제천행사 때는 비단옷을 입었는데,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특정하고 신성한 날에는 모두 비단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아 비단이 갖는 사회상의 의미는 신성하고 정제(精製), 엄숙함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또한 특정 예술분야에 종사했던 서민들은 그들의 예술적 표현을 위한 행사때에는 비단옷을 입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예술인들이 그들의 음악 예술적인 행위를 표현하는데 있어 본래의 예술적표현에 시각적인 미를 조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²⁹⁾

특히 樂工들의 착용하는 비단재료의 장식이나 의복류에도 그 색깔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 고구려 사회에서의 염색기술도 상당히 정교하게 발달되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전문적인 염색 기술자가 있었으며 멀리 일본에 까지 가서 그곳의 기술습득에 공헌하기도 하였던 것이다.³⁰⁾

이와같이 고구려 사회에서의 복장문화는 의복에 따라 사회계층, 계급의 구별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복형태가 나타내는 모양은 다양각색이

었다.

V. 백제의 건문화

1. 백제의 시대개관

백제는 한반도의 서부에 위치하여 고구려와 비슷하게 대륙문화를 일찍부터 받아들일 수 있었다. 거기에는 백제는 잡다한 북방 이주민과 토착민으로 혼성된 국가로 중국문화(특히 남조계통)의 영향이 컸고 비교적 넓은 평야와 비옥한 토양과 수리시설에 알맞는 하천이 있어 농업국가의 면모를 나타내게 되었다. 백제는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3세기경인 고이왕(古爾王 234~286)때에 고대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4)때에 이르러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게 된다. 이러한 백제 역시 농업국가로써 지금 한반도의 경기·충청·전라지방과 황해·강원도의 일부를 차지하는 큰 나라로서의 문화를 형성 발전하였으며, 중국문화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남쪽으로는 일본과도 통교하면서 일본에 문화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국가이다. 백제에서는 租를 布·絹·絲·麻와 米穀으로 징수했을 만큼 직물의 문화가 발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2. 건과 정치

백제에서는 양잠법(養蠶法)과 직조법이 널리 행해졌다. 온조왕(溫祚王 B.C.18~A.D.27) 11년과 38년에 영(令)을 내려 農桑³⁰⁾을 권장하였으며, 百濟의 부세(附稅)는 견포 및 비록 등을 바치되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기록이 있어³¹⁾ 백제시대의 양잠정책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우기 근초고왕때 발달된 양잠법, 직조법을 일본으로 전래시켜 후세에 일본의 양잠 방식이 발달할 기틀을 만들어 주었다³²⁾고 하는 점은 백제의 건직물이 일찍부터 양잠을 장려하여³³⁾ 성행하게 한 정책적 시책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백제의 건문화가 발달했다고 하는 근거는 정치적 인 면에서 사신을 보냈을 때 그 답례로 비단을 하사

했다거나 백제가 일본에 봉의공녀(縫衣工女)를 보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즉 일본측 역사서인 일본서기³⁴⁾에 보면 그러한 기록들이 있다.

爰斯摩宿禰即以倭人 爾波移與卓淳人過古二人 遣于百濟國 慰勞其王時百濟肖古王 深之歡喜 而厚遇焉 仍以五色綵絹各一匹 及角弓箭 …… 幣爾波移。³⁵⁾

“이에 사마숙니(斯摩宿禰)는 곧 倭人(지방관청에 딸린 소사) 爾波移와 卓淳사람 過古 두사람을 백제국에 파견하여 그 왕을 위로 토복하였다. 이때 백제의 초고왕은 매우 기뻐하여 대접을 후하게 하고 오색비단을 각 한필과 각궁선(角弓箭) …… 爾波移에게 하사하였다……”

이같은 기록에서 백제에서 비단이 정치적 하사품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의미로 보내지는 증답품이나 하사품은 그 가치의 진귀성에 있는 만큼, 물론 비단 자체가 귀중품인 것만은 사실이나 정치 통치자가 내리는 하사품은 그 품질면에서 매우 훌륭한 생산품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추론하기 어렵지 않는 사실이다. 따라서 백제에서는 품질 좋은 비단이 생산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비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직조기술이 발달하였고 이에 따른 기능인도 많았을 것이다. 결국 백제의 발달된 직조기술은 그 기술을 지닌 기능인인 봉의공녀를 일본에 보내어 그 기술을 전파했던 것이다.

十四年春二月 百濟王貢 縫衣工女 曰眞毛津 是今來日衣縫之始祖也。³⁷⁾

“14년 봄 2월에 백제왕이 봉의공녀(縫衣工女)를 보냈다. 진모진(眞毛津)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오늘날의 來日縫衣의 시조가 된다.”

백제에서의 직물문화의 발달은 외국에 기술을 전파할 만큼 발달된 것이다. 이는 방직업 정책을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관여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백제에서는 직직물에 대한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세금을 기둬들일 때 비단이 세금 납세의 수단으로 채택되어 졌다³⁸⁾는 점에서 비단은 백제사회의 물품화폐로도 통용될 만큼 많은 유통이 있었던 것이다. 백제에서도 고구려와 마

찬가지로 비단이 정치 최고 통치자의 권위와 지도계층의 신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졌다. 백제 왕의 복장을 보면,

春正月 百濟王始服紫大袖袍青錦袴 金花飾烏羅冠 素皮帶烏革履 坐南堂聽事³⁹⁾

“초봄 1월에 백제왕은 비로소 자색(紫色) 대수포(大袖袍)에 푸른 비단바지(青錦袴)를 입었고,金花로 오라관(烏羅冠)을 꾸몄으며, 흰 가죽띠(素皮帶)에 검은 가죽신(烏革履)을 신고 南堂에 앉아 정사를 보았다.”

라고 하고 있다. 비단의 색깔에 의해 왕의 고유복장을 상징한 듯 보인다.

다음 기록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唐書百濟傳曰 有三島生黃漆 六月刺取 藩色若金 王服大袖紫袍 青錦袴素帶 烏履烏羅冠 飾以金群臣絳衣冠以銀齒 禁民衣絳紫有文籍記時月 大袖紫袍 青錦袴 素皮帶烏革履 烏羅冠以金齒如華人 ……⁴⁰⁾

“세 섬에서 황칠이 나는데 6월에 나무껍질을 벗겨 전을 취하여 쓰는데 빛깔이 금과 같다. 왕은 큰 소매의 紫色袍와 푸른 비단바지를 입고 흰가죽띠를 띠고 검은 가죽신을 신으며 검은 비단관을 쓰는데 모두 금으로 장식하였고, 朝臣들은 붉은 옷을 입고 관은 은으로 장식하였으며, 백성에게는 붉은 비단과 자색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 문서에 기록하기를 이 달에는 큰 소매의 자색포를 입고 청색의 비단바지를 입고 흰가죽띠를 띠며 검은 가죽신을 신고 검은 비단관을 썼는데 이 관은 금으로 장식하였음이 중국사람과 같은 점이다……”

정치의 최고 통치자인 왕은 푸른 비단바지를 입었는데 왕의 복장이 중국과 같다고 하였다. 백제가 중국의 남조문화와 교류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아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고구려와는 달리 백제의 서민들은 비단옷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 옷의 색깔로 신분을 구별하였으므로 일반 백성에게 붉은 비단과 자색 비단만 입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정치 지도계층도 옷의 색깔로 차등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내용을 보면,

置佐平六官曰 內臣 掌宣納 曰內頭掌庫藏 曰內法掌禮儀 曰衛士掌宿衛 曰朝廷掌獄刑 曰兵官 掌兵事又置 達率 恩率 德率 扞率 奈率 將德 施德 固德 季德 對德 文督 武督 佐軍 振武 克虞 十六品 佐平五率服紫五德服緋 二督佐軍 振武 克虞服青 國君紫袍大袖青錦袴 革帶烏革履.⁴¹⁾

“佐平은 六官을 두었으니 즉 內臣은 宣納을, 內頭는 庫藏을, 內法은 禮儀를, 衛士는 宿衛를, 朝廷은 獄刑을, 兵官은 兵事를 관장하게 하였고, 또 達率, 恩率, 德率, 扞率, 奈率과 將德, 施德, 固德, 季德, 對德, 文督, 武督과 佐軍, 振武, 克虞 十六品을 두었다. 좌평과 5솔은 자색을 입고 5덕은 비색을 입으며 2독과 좌군, 진부, 극우는 청색을 입었다. 국왕은 자색포에 큰 소매가 달린 옷과 파란 비단 바지를 입고 흰색 허리띠를 매며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왕으로 부터 시작하여 그 이하 모든 관원들이 등급과 차등에 따라 옷의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같은 비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비단의 색깔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염색기술이 발달해야만 한다. 이러한 백제에서는 왕족과 귀족의 의복을 公奴婢들의 수공업제품으로 충당되었다.

3. 견과 경제

백제는 비옥한 한반도의 서남쪽을 차지하여 미곡을 비롯한 각종 농작물이 풍부하게 생산되었고 각종 직물과 벽돌, 금속제품, 무기 등의 수공업이 발달하였으며, 국도인 固麻城에는 官說市場이 있어서 도시 부란 시장 담당관이 관장하고 있었다.⁴²⁾ 이러한 백제는 중국남조와 일본 등에 국제적 조공무역도 적지 않게 하였던 것이니 중국에 대한 수출품은 주로 錦布·海物·果下馬·明光鎧·金甲雕斧 등의 공물이며 중국으로 부터는 佛典·錦袍·彩帛 등을 수입하였다. 또한 백제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것은 博士·佛師·鍛工·織工·縫女 등의 인적자원 이외에 綵絹·劍·角弓·箭·鐵鋌·佛像·佛典·卜書·曆本 등을 수출하여 良馬·弓·箭·麥種·絹絲·布 등을 수입하였다.⁴³⁾

국제적으로 개방정책을 썼던 백제는 고도한 외국 문화의 수입으로 기술이 향상되고 품질이 우수하였고,⁴⁴⁾ 백제의 定安那가 일본인에게 錦織기술을 전수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⁴⁵⁾ 백제사회의 무역발달은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견을 수출하고 또 수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백제사회에서의 비단생산과 유통이 부침 활발했으며 이에 따른 방식업으로 인한 수공업도 발달하였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백제사회의 신분관계에 의한 의복제도에서 직물의 수준은 물론 각종 염색 기술이 발달했음을 추측할 수 있고, 각종 방식과 염색으로 비단의 생산기술이 뛰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관리들이 착용하는 고급 견직물과 사(紫)·비(緋)·백(白)·청(靑) 등의 염색술로 볼 때 백제의 직조기술과 염색기술은 극지에 다달았으며, 고도로 발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량화된 錦布는 당시의 물품화폐로써 사용되었으며 국제간의 교역품으로도 등장하게 된 것이다.

4. 견과 사회

고구려와는 달리 백제사회에서는 시민들의 비단 착용이 금지되지는 않았다. 단 착용하는 비단의 색깔 구분을 하여 색깔로 신분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붉은색과 자색 비단옷의 착용만을 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서도 백제사회에서는 양잠업이 성행하였고 견직물, 직조기술도 활발하였다. 따라서 백제사회에서는 견직물이 물품화폐로 통용될 만큼 비단의 유통이 많았다. 삼국중 세금을 비단포로써 징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도 유일하게 백제인 것으로 보아서 그만큼 백제 사회에서의 견직물의 발달을 가늠케 한다. 따라서 백제사회에서는 蠶桑에 밝아서 각종 직물을 직조하여 이것이 비곡과 함께 조세로 징수되기도 하고, 물물교환의 표준가치로써 화폐의 소임도 하였으며, 외국과의 교역 혹은 증답품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였다.⁴⁶⁾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양잠을 잘하고 좋은 견사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누에의 습성, 생활사, 생리 등에

밝아야 하겠고, 이는 곧 일반 곤충 그것도 類推了解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되었을 것이다. 또 비단의 염색에 있어서도 그 색의 광택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것을 분리제사하려면 원료식물의 구조와 성질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염색의 원료가 되는 염료식물의 지식도 요청되었을 것이다.⁴⁷⁾ 따라서 백제사회에서는 비단의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물학적 지식이 널리 발달되었던 것이다.

V. 결론

고구려와 백제의 북상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건물화투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적으로 건은 통치계급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적 표현의 수단이었다. 따라서 정치 지도계급에 따라 비단의 종류, 문양, 색깔이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이는 지배층인 고구려 계급내에서 주로 비단이 사용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건생산을 위한 잠업정책의 권장으로써 통치자의 지식(治績)을 갖게한 요소이다.
2. 경제적으로는 건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직조기술의 발달과 대외무역에 있어 교역물품으로써 경제유통의 한 품목이 되었고 이에 따른 생산 및 상품의 유통 과정에 따른 商·手工業의 발달을 촉진했다는 요소이다. 또한 잠업정책의 권장으로써 농경사회에서의 농업경제의 생활화를 가져오게 한 요소이다.
3. 사회적으로는 건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회 신분계급을 엄격하게 구분하였고, 건의 다양한 무늬나 색깔로써 신분계급을 구분하다보니 여기에 따른 비단의 색깔과 무늬를 나누기 위한 염색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따라서 고구려사회의 의복문화는 화려하고 다양한 사회적 유행의 속성을 날게한 요소이다. 또한 음악 예술인의 외적표현 복장에 비단이 사용됨으로써 음악과 무용에 시각적 예술의 조형으로써 비단의 아름다움이 나타났었다는 예술적 속성을 갖게한 요소이다.
4. 백제사회에서 건은 정치적 하사품으로 사용되었

음이 구체적 기록을 통해 보이고, 백성에게는 붉은 비단과 자색 비단옷을 금지함에 따라 비단의 신분계급 관계의 의복제도가 뚜렷히 확립되었다는 요소이다.

5. 백제에서는 중국의 염직기술과 교류되었다. 백제에서 생산된 비단은 중국·일본 등지에 주된 교역물품이 되었음이 경제적 속성의 요소이다. 이에 따라 방직업 및 염색업 발달을 가져왔으며, 비단이 물품화폐로 통용되었고 주요 납세 품목으로 징수된 것이다.
6. 사회적으로 백제에서는 비단생산과 관련된 생산기술의 발달로 여기에 따른 누에의 생태, 염색업을 하기 위해 염색식물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이 널리 만연되었다는 요소이다.

【참고문헌】

- 1) 韓國蠶業史, 大韓蠶絲會, 1989, P.49
- 2) 임승국 譯, 한단고기, 정신세계사, P.62
- 3) 上揭書, P.61
- 4) 金元龍, 鰲山里유적발굴보고, (서울대학교고고학 인류학총서) 제10책, 1985, P.33(1985, P.33)
- 5) ① 後漢書, 減傳
② 三國志, 減傳
- 6) ① 後漢書, 馬韓條
② 三國志, 韓傳
- 7) 後韓書, 辰韓條
- 8) 三國志, 夫餘條
- 9) 三國志, 夫餘傳
- 10) 關野 貞, 朝鮮의 建築과 藝術, '第1章 樂浪郡時代 第4節 殉葬品' 1941, P.16
- 11) 三國史記, 卷第十九 高句麗本紀 第十
- 12) 增補文獻備考, 卷七十九 禮考二十六章 服一
- 13) 東史綱目, 卷三下 己卯 高句麗 榮留王 二年 二月
- 14)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7, P.56
- 15) 三國史記, 卷第十六 高句麗本紀 第四
- 16) 通傳, 卷一百八十六
- 17) 韓國文化史大系, 科學·技術史(上),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9, P.33
- 18)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81, P.297
- 19) 朴京子, 韓國服飾論攷, 新舊文化社, 1983, P.30
- 20) 金元龍, 한국미술전집, 4벽화 '19龕神塚전실 서벽벽화' 1974, P.137
- 21)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第六 長壽王條
- 22) 金柄夏, 李朝前期對日貿易研究, 韓國研究院, 1969, P.15
- 23) 冊府元龜, 卷六四帝王部 發號令門을 인용한 閔吉子, 韓國傳統織物의 纖維學的特性에 關한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7, P.12에서 재인용
- 24) 韓國貿易史, 韓國貿易會, 1972, P.21
- 25) 李如星, P.297
- 26)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3, P.45
- 27) 增補文獻備考, 卷八十 禮考 二十七章 服二
- 28) 魏書, 卷一百 高句麗傳
- 29) 三國史記, 卷三十二 雜志一樂
- 30) 韓國文化史大系, 政治·經濟史(中),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9, PP. 89~991
- 31)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紀 第一
- 32) 東史綱目, 卷二下壬子 百濟蓋鹵王 十八年後漢書
- 33) 韓國蠶業史, P.50
- 34) 韓國文化史大系, 政治·經濟史(中), P.997~998
- 35) 日本 最古의 歷史冊, 古代로부터 持統天皇 11年(679)에 이르는 傳說·事實等을 編年體로 記錄한 政事記, 舍人親王·太安麻呂 등이 中國史書를 본떠서 漢文體로 엮었음, 72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모두 30卷
- 36) 日本書記, 卷九神功皇后 攝政 四十六年
- 37) 日本書記, 卷十 應神天皇 十四年
- 38) 北史, 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二 百濟傳
- 39) 東國通鑑, 卷三 三國記 新羅 沾解王 十四年 七月
- 40) 東史綱目, 卷三 下 辛巳 百濟武王 二十二年 十月
- 41) 記言 第一輯, 記言原集外篇 卷之三十四, 東事, 百濟世家

- 42) 社團法人 韓國貿易史, P.21
43) 上揭書, P.22
44) 韓國民俗大觀II, 高麗大學校 民俗文化研究所,
1980, P.333
- 45) 日本書記, 卷十四 雄略天皇 七年
46) 韓國文化史 大系, 科學·技術史(上), PP.308~
309
47) 上揭書